

해양과학기술원 “기름막 육안 확인...환경영향 평가 필요”

환경운동연합 “남해 하천까지 기름띠 유입...최악 상황”

‘여수 기름유출 현장’ 1차 모니터링 결과

방재당국은 피해상황 축소에 급급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이 넘었지만 바다와 해안의 잔존 유분은 넓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신덕마을 등 유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제작업이 활발히 벌어졌던 여수지역과 달리 사고 해역 맞은편에 위치한 남해군의 화전마을과 염해마을은 밀물에 유출된 기름띠가 하천까지 유입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실시한 해양오염 영향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 발생 뒤 10일 이후에도 해상·해안에 남아있는 기름이 넓은 지역에서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등은 기름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정부와 방재 당국이 피해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유류·유해물질 연구단은 13일 광주 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수시·남해군 등 22개 어촌계를 돌며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2차 해양오염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갯벌에서 열게 퍼져 있는 기름막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고 밝혔다. 연구단은 지난 4~6일 1차 영향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일 2차 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단 관계자는 “2차 영향 조사는 사고 이후 10일이 지나 실시한 것으로 이 때까지도 2cm 미만의 유막과 잔존 기름 등이 바다와 해안가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면서 “이같은 내륙 하천까지 유입된 기름은 방제작업이 더뎠던 남해군 고현면 서면 일대 해안가의 경우 여전히 방제작업이 필요할 만큼 기름막과 기름띠가 끼여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측은 “사고 지점에서 불과 3.5km 떨어져 있는 남해군 염해마을은 유출된 기름이 밀물에 역류, 마하천까지 유입되고 제방이 기름에 묻혀 색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고 인근은 물론, 남해 역시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경이 지난 3일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충분한 기름 제거 작업 등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해경 등이 선부른 판단으로 방제작업 완료 등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환경단체들도 심각한 기름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13일 지난 9일부터 광양만 일대 기름오염지역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여수 신월동과 곡동, 돌산 굴전 등에서 추가 기름띠를 확인하는 가 하면 초동 방제작업이 더뎠던 남해군 고현면 서면 일대 해안가의 경우 여전히 방제작업이 필요할 만큼 기름막과 기름띠가 끼여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측은 “사고 지점에서 불과 3.5km 떨어져 있는 남해군 염해마을은 유출된 기름이 밀물에 역류, 마하천까지 유입되고 제방이 기름에 묻혀 색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고 인근은 물론, 남해 역시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경이 지난 3일 긴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충분한 기름 제거 작업 등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해경 등이 선부른 판단으로 방제작업 완료 등을 결정했다는 비판이다.

환경단체들도 심각한 기름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뇌졸중 발병률 기온·습도와 연관”

미 대학 연구 결과

뇌졸중은 기온, 습도, 일교차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예일대학 주디스 리히트먼 박사는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은 날, 또 일교차가 큰 날은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AP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2009~2010년 사이에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13만4510명이 포함된 날씨 전국기후자료센터(NCDC)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리히트먼 박사는 말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져 나타나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으며 허혈성 뇌졸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온이 섭씨 2.8도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입원율은 2.3%, 뇌졸중 사망률은 4.1%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도는 5%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입원율은 2% 높아졌다. 일교차는 섭씨 2.8도 벌어질 때마다 뇌졸중 입원율은 6%씩 증가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0분, 해질 18시 13분, 달출 17시 43분, 달몰 06시 28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9℃
목포	맑음	-1.8℃
여수	맑음	1.7℃
나주	맑음	-4.10℃
완도	맑음	1/10℃
구례	맑음	-3.9℃
강진	맑음	-2/10℃
해남	맑음	-2/10℃
장흥	맑음	-2/10℃
순천	맑음	1.9℃
영광	맑음	-4.8℃
진도	맑음	0.9℃
전주	맑음	-3.9℃
군산	맑음	-2.8℃
남원	맑음	-2.8℃
옥산도	맑음	2/5℃

항향	파고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높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2.5m	높음	높음

항향	파고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높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2.5m	높음	높음

◇주간날씨

날짜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3/10	-3/11	-1/11	4/6	3/4	-2/6

신임 광주고법·지법원장 인터뷰

“진정성 담은 소통으로 신뢰 강화”

방극성 광주고법원장

“진정성을 담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가겠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시민들이 법원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방극성(59·연수원 12기) 신임 광주고법원장이 13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아파트 1채만을 재산으로 가져 ‘청빈 법관’으로 명성이 높은 그는 전주, 제주지법, 광주고법을 모두 거친 호남 법조계의 수장이다.

그는 우선 ‘진정성’을 강조했다. 무조건 알리며 소통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법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에 온 시민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원의 소양도 높이며 좋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주력하겠습니다”

방 고법원장은 법관으로서 “누가 이겨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회상했다. 방재고민하거나 합의부 배석판사들과 수도 없이 협의해도 ‘답’을 찾지 못하면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는 엄청났다. “하도 회의를 많이 하니 후에 판사들이 저를 꺼리더라

고요. 하지만 그러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겠지요”

남원 출신인 방 고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85년 9월 법원에 임용된 뒤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 감정·상식 맞는 판결 노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법관으로 임용된 뒤 대부분을 광주에서 보냈습니다. 영광스럽고 기대만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큼니다. 법원에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장병우(60·연수원 14기) 신임 광주지법원장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그는 다산 정약용이 목었던 감진 ‘사의재(四宜齋)’를 자주 찾곤 한다. 사의재란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4가지는 맑은 생각,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하고 행동을 말한다.

장 지법원장은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재판’, ‘1심 기능 강화’ 등을 강조했다. “1심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사법 철학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법 감정이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신뢰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잘하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일치론’도 폈다. “법관의 자질과 품격은 애써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지법 내부 시스템도 살펴보고 좋은 부분은 강화하고 안 좋았던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에서 태어난 장 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법원에 임용돼 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법, 광주지법 수석부장, 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깨끗하게 둘러보기’

관리공단, 보전 운동 연중 전개

무등산 국립공원의 훼손을 막고 친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한 지역민 중심의 보전 활동이 전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13일 ‘선진 탐방 문화 정착’을 목표로 무등산 가꾸기 운동을 연중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만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이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탐방로(87.4km)의 21.8%에 달하는 19.08km가 폐이고 유실되는 등 훼손되는가 하면, 국립공원 내 흡연·쓰레기 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왔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은 ▲Hot-Spot 점검 관리 ▲탄소제로 무등산 범시민운동 ▲공원자율제 인제 활동 강화 등으로 나눠 실시된다.

우선, 장봉재·중머리재·원호사 계곡·중심사 계곡 등 탐방객 방문이 잦은 4곳을 이른바, 관심 지역(Hot-Spot)으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환경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 일대에는 무인감시장비를 설치

하는 한편, 월 3차례의 정기 순찰 외에 분기별로 한 차례씩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탄소 제로 무등산’을 만들기 위한 운동도 전개한다. 무등산 내 ‘흡연 제로화’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 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3곳(중심사·원호사·청동원)인 ‘그린포인트’ 2곳(공암재 탐방지원센터, 동적골 입구)을 추가해 운영키로 했다.

또 주말이면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중심사 지구 내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당 지역 상인들과 공원 사무소 차량에 대해서 이뤄졌던 출입 차량을 재등록 절차를 거쳐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탐방객들이 몰고 오는 차량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는 원호사 지구 주변에 주차 방지봉 등을 설치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을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뒤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을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 보장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입학문의 ▶ 062)605-1114, 1027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예능	실용음악학과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클래식기타,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총계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4. 2. 21(금) ~ 2. 24(월)
· 전형일: 2014. 2. 25(화) 오후 2시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2로 36